



천년 고찰서 2천불자 '참불자의 삶' 발원

도선사 108사찰순례단 6회차 순례... 정진·군장병 수계·농촌사랑 "환희심 가득"

인산인해(人山人海)다. 조용하던 산사가 갑자기 술렁거렸다. 3월 3일 오전 10시 충남 논산 관촉사 입주문(一柱門)을 출발해 경내로 들어오는 2000여 순례객 때문이었다. 서울 도선사가 매월 진행하는 '선목 혜자 스님과 함께 하는 108산사 순례기도법회'였다.

관광버스에서 일제히 내린 2000여 신도들은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인솔로 질서정연하게 '석가모니불'을 영송하며 경내로 들어섰다. 순례객 모두가 관촉사의 가장 큰 어른(?)인 석조미륵보살입상 앞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만 무려 30분이 넘었다.

이번이 여섯 번째 순례여사인지 순례객들은 일사분란하게 일명 '은진미륵'인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앞에 마련된 공양미 자루에 준비해온 쌀 한 되씩을 붓고서 자리에 앉았다. 제법 넓은 경내였지만 빈 공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 채워졌다.

마중 나온 관촉사 주지 혜자 스님은 "올해가 관촉사 창건 100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인데 창건 이래 최대의 순례객들이 오늘 모이신 것 같아 참으로 경사스럽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리를 정돈한 순례객들은 '천수경' 독경에 이어 108배를 올렸다. 혜자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것"이라며 "오늘 불자님들이 하시기득 안고서 발원(發願) 보따리를 기도하면서 마음껏 풀어 놓으시라"고 격려했다.

법회도중에는 2000여 불자들이 관촉사에 왔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이인제 국회의원과 임성규 논산시장 및 시의원 5명이 법회장을 찾아 지역특산물들을 많이 구입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참가자들에게 전했다. 이 자리에서 혜자 스님은 임성규 시장에게 지역 복지시설에 기탁해 달라며 108만원의 보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법회 후 참가자들은 혜자 스님으로부터 관촉사 이름이 새겨진 염주를 한 알씩 받았다. 이날 염주를 가장 처음 받은 주인공은 법회장 맨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올린 불자가수 장미화씨. 장씨는 "첫 순례법회때부터 회원으로 등록하고 염주소멸을 위해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있다"며 "꼭 출연해야 하는 공연 스케줄이 없는 한 기도순례 회향날까지 빠짐없이 참석해 108염주알을 꿰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순례단은 기도 순례



2000여 도선사 108산사 순례단이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을 향해 기도정진을 하고 있다.

외에 현지 농산물 구입 운동도 함께 벌여 교계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이날은 논산 특산 딸기와 강경 젓갈을 파는 좌판이 입주문 밖에 펼쳐져 참가자들의 발길을 잡았다.

점심공양 후 순례단은 인근 육군훈련소 법당인 호국연무사로 자리를 옮겨 장병불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를 받은 5백여 장병불자들은 청정한 계를 철저히 지키고 국방의 의무에 충실할 것을 부처님께 서원했다. 수계법회가 끝난 뒤 이날 순례법회에 참가한 불자가수 장미화씨와 머무씨는 음성공양을 통해 법당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순례법회 참가자들은 각자 한 상자씩 가져온 초코파이와 지역에서 구입한 딸기를 군법당에 보시했다.

강의중 호국 연무사 주지 법사는 "군포교의 뒷밭인 논산 훈련소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개 종교가 장병 포교를 위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일반 사찰의 후원이 적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방문해서 격려와 위로를 해 주니 군포교 활성화에 큰 힘이 됐다"며 즐거워했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혜자 스님도 "군포교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한번 실감했다"며 "다음번 순례때부터는 답사지역 인근의 군법당을 꼭 방문해 장병불자들을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8사찰 순례단은 3월 29일 전북 부안 내소사에서 일곱번째 기도순례를 봉행할 예정이다.

논산=김주일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협찬 : 108사찰산사기도회

혜자 스님 '농촌사랑 홍보대사'에 위촉

(사)농촌사랑운동본부(상임대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강신호 경제인연합회장은 3월 2일 농협중앙회 본부 대강당에서 혜자 스님, 김시영 신부를 '농촌사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108사찰 순례 및 우리 농산물 구매 활동을 통해 우리 농촌 살리기에 앞장선 공로로 농촌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혜자 스님은 "108사찰 순례때 해당 지역 불자들이 절 밑 상점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농촌사랑운동으로 확대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108사찰순례단을 대표해 대신 받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혜자 스님은 그동안 여섯차례의 사찰 기도 순례를 통해 지역 복지시설에 108

만원씩 기부했으며, 특산물 구매를 통해 농민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향후 7~8년간 108곳의 사찰에서 농촌사랑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혜자 스님을 비롯한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농촌사랑운동이 범종교적 나눔운동으로 확대되도록 종교인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농촌사랑 홍보대사에는 인기 여성 그룹 주얼리 등 154명이 소속돼 있다.



혜자 스님이 법회장을 방문한 이인제 국회의원(원쪽 첫번째)과 임성규 논산시장(왼쪽 세번째)을 소개하고 있다.



동화사 학인스님들이 수계 장병들에게 연비를 집전하고 있다.



관촉사 입구에 마련된 특산물 매장에서 기도순례 참가자들이 논산 딸기를 구입하고 있다.



순례단 맨앞에서 정진중인 불자가수 장미화씨.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